

## 고분이란?

고분(일본어로 ‘고훈’)은 3~7 세기 동안 일본 전역에 세워진 커다란 분묘를 말합니다. 고인을 귀중품과 함께 매장하여 고분을 만드는 풍습은 아시아 대륙에서 전해졌습니다. 일본 열도에서는 16 만여 개의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.

고분의 형태는 정방형, 장방형, 원형, 전방후원형 등 다양합니다. 전방후원형 중에는 입구 쪽은 장방형이지만 뒤쪽에 있는 묘실은 원형인 형태도 있습니다. 위에서 보면 전체 구조가 열쇠 구멍 모양처럼 보입니다. 전방후원형 고분은 크기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분은 오사카부에 있으며 면적이 약 32.3 헥타르에 달합니다. 이 고분은 닌토쿠 천황(257?~399)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.

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만이 고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. 고분의 크기가 클수록 그 안에 매장된 이의 권력도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 고분을 짓고 난 후에는 경사면을 주먹만 한 돌로 덮었습니다. 무덤 주변에는 의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물품과 조각들이 놓였습니다.

초기 고분에 있는 묘실에는 장식이 없었지만, 6 세기 이후 규슈 북부에 만들어진 고분은 일반적으로 채색화와 벽화로 꾸며졌습니다. 고인은 관 내부와 주변에 놓인 부장품과 함께 매장되곤 했습니다. 고분 내부에서 발견된 출토품들은 고대 일본의 문화 및 기술, 다른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. 초기 고분에는 주로 곡옥, 청동 거울, 기타 의식용 물품이 있었지만 6 세기부터는 철제 무기, 갑옷 등 무구도 흔히 발견되었습니다.

오무타에는 고분이 많은데,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하기노오, 구구리즈카, 구로사키 간논즈카 고분입니다. 지역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은 미이케 카르타 역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